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기술 협력 본격화

농진청, 기술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본격적인 농업기술협력을 위해 지난 24일, 본청 국제영상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양국 간 원격으로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는 허태웅 농촌진흥청장과 엘리자베스 베츠돌(Elizabeth Betsch) FAO 사무부총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농촌진흥청과 FAO는 협약을 통해 농업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농업을 주도할 새로운 기술 개발과 두 기관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국과 FAO 간 협력의 역사는 FAO의 기금과 기술지원을 받아 토양과 토양비옥도 조사사업을 시작했던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를 토대로 농촌진흥청은 세계에서 가장 세밀한 전국 토양지도 제작해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본격적인 농업기술협력을 위해 지난 24일, 본청 국제영상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허태웅 청장이 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진흥청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13개국을 위해 아시아 토양지도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FAO와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성 품종개발 및 드론·위

성 등을 활용하는 정밀농업 등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FAO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 농업기술 공여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대륙별 기술협력협의체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돌봄대상자

어르신택 주거환경 개선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정읍시지부(지부장 이윤근)·칠보농협(조합장 권혁빈)은 지난 25일 추석명절을 맞아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통해 정읍시 칠보면에 거주하는 돌봄대상자 어르신택을 방문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박모(80)씨는 "늙고 오래 된 벽지로 냄새가 심하고 장판이 많이 찢어져 불편했는데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통해 지원도 받고 농협 임직원들이 직접 청소까지 해주어서 이제는 깨끗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성일 본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농촌 방문 횟수도 줄어들고 추석명절 고향을 찾지 못하는 가족들이 생겨 돌봄 사각지대 고령농업인의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돌봄대상자 주택을 농협에서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노후 된 주거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고 계시는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가을수박 비대기 관리 주의'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가을수박 비대기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전북지역은 가을 수박을 생산하기 위해서 8월 중순의 한여름에 묘를 심어 현재 착과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기상 상태가 양호해 착과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야간 기온이 15°C 전후까지 낮아지는 시기로 과실 비대가 억제될 수 있으므로, 과실 비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과 양수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비대 초기에 웃거름을 줘야 하고, 그다음은 일사량과 기온 관리이다. 김갑철 기술원 수박시험장은 "가을수박 농가의 소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인 비대기에 웃거름 주기와 환경관리를 잘하면 고품질의 가을 수박을 생산 할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도내 소공인 '스마트공방' 사업 선정

전북중기청, 비케이시·인코테크 등 2개사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3차추경)에 전북지역 소공인 2개사를 선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스마트공방'은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이 스마트기술(IoT, AI 등)을 도입해 수작업 위주의 제조공정을 개선(부분 자동화, 생산관리시스템 도입 등)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3차 추경 사업에는 소공인 289개사(전북지역 5개사)가 지원했으며,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전국 13개 시·도에서 17개 업종(제조업 25개 업종 중분류 중) 62개 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비케이시'는 광충정

장비 및 고효율 LED 개발을 위해 2009년 창업,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다수의 특허등록(23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9년도 백년소공인 선정 및 최근 기술력이 인정돼 도터널용 LED 가로등을 수주했다. '인코테크'는 1988년 기계가공 능가사 1급 취득을 시작으로 정밀 가공분야에 전념하고 있으며, 2019년도 백년소공인 선정 및 총기관련 정밀 부품을 다산기공에 납품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지난 스마트공방 1차 선정(20개사, 6월)에 이어 3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추가 선정된 것으로 선정된 소공인에게는 연말까지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업체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윤상 기자

대규모 금융사건 재발 방지 해법 찾기

전북도-금융법학회, 학술대회

지역 금융 발전 방안도 모색

전북도는 (사)한국금융법학회와 공동으로 전주그랜드힐스호텔에서 '최근 대규모 금융사건 관련 법적 쟁점 - 사모펀드 중심'이라는 주제로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를 지난 25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전북 특화금융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JF)와 대형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등 대규모 금융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열렸다.

이날 학회 회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기조발제는 '지역 금융의 발전을 위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정진형 고

려대 명예교수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을 지역성장의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역금융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전북이 지역금융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금융과 핀테크산업을 특화전략으로 하는 금융생태계 기반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세션에는 양기진 전북대 교수, 정재은 신용증권 변호사,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문, 이승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발생한 펀드 사고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했다.

한국금융법학회의 이번 학술대회는 금융시장의 큰 변화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해 금융법무 전문가들의 이론적·실천적 해법을 제시, 금융시장 건전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도-경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온라인 지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회적경제 온라인 지원사업'은 온라인 판매가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지원 교육 및

해외시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경진원 해외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제품의 시장가치, 제품 분석을 위한 시장조사를 진행하며, 해외온라인 입점을 위한 아마존, 소피 입점 과정 교육을 통해 기업 실무자 실무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3개 업체로 제품군은 정갈류, 펌프차, 고구마말랭이 등이다. /김윤상 기자

어려운 이웃에 지속적인 사랑나눔 실천

전주페이퍼, 보육원·경로당등에 생활용품 전달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회

사가 있다. 지역의 대표기업인 전주페이퍼(생산부장 김경식)는 지난 25일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보육원,



지역의 대표기업인 전주페이퍼는 지난 25일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보육원, 경로당, 인근마을 주민 등 총 15개 단체에 쌀, 선물세트, 김, 복사지, 노트 등 1천여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경로당, 인근마을 주민 등 총 15개 단체에 쌀, 선물세트, 김, 복사지, 노트 등 1,000여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지역의 향토기업인 전주페이퍼는 지역의 도움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해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베풀며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전주페이퍼는 설날과 추석의 이웃사랑 나눔은 물론, 인근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야유회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순기정 15세대와 결연을 맺고 매월 꾸준하게 지원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성완 사장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장애인근로복지공단 조종란 이사장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호석 호남통계청장

전주 남부시장 상인 격려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지난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주시 완산구 소재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을 방문했다.

이 청장의 이번 전통시장 방문은 추석 성수품인 쌀, 과일, 생선, 채소류 등 농축산물의 최근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에서 도계청 소비자 불가조사에 적극 협조해준 상인들을 격려하고 신선식품과 곡물 등 명절 성수품을 구매했다. 구입한 물품은 지역내 아동복지시설인 삼성휴먼발에 전달해 나눔 문화 확산에 일조했다.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전통시장이 어렵다"며 "호남지방통계청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컨설팅 통한 적합 직무 발굴

전기안전공사,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지난 25일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더욱 확산해나가기 위해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실시한 공사 컨설팅 결과보고회를 함께 갖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기시설의 안전을 주로 다루는 공사 업무 특성상 장애인 채용과 적합 직무 발굴에 어려움이 컸던 상황에서 공단과의 이번 협약은 장애인력 채용의 새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공사는 올 연말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인 '전기안전 문화공연단(가칭 '유니버설 안전예술단')을 만들어 공단이 운영하는 전주맞춤훈련센터에 교육을 위탁한 후 특수학교 등 교육현장에서의 공연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지원 서비스 확대 ▲적합 직무 개발과 인력 양성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직장교육 등에 있어서도 협력의 수준을 한층 높여나가기로 했다.

조성완 사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이제 더 이상 수혜가 아닌 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단과 손잡고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조달청, 3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020년 3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으로 62개사를 지정했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패스(G-PASS,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은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다.

지난 2013년 95개 기업을 지패스 기업으로 처음 지정된 후, 매 분기마다 연 4회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총 790개 사가 됐다. 지난해 7.5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이번에 지정된 62개사는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로 사물형 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주차시스템, 지능형 방법시스템, 인공지능(AI) 발열측정기 등 혁신·친환경 우수 제품 생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정 기업들의 주요 거점 국가는 미국

(14개사), 중국(13개사), 신남방 국가(17개사)를 중심으로 시아미(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패스 기업으로 지정되면 해외전시회·수출 상담회 참가, 입찰제안서 작성, 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조달청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케이(K)-방역 해외조달시장 진출 통합지원 사업, 케이(K)-방역 온라인 나라장터 엑스포(11월), 공공조달수출상담회(12월) 등을 통해 국내 조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코로나 19의 재확산 위험 속에 우리경제의 회복세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코로나19 방역 과정을 통해 획득한 케이(K)-방역의 우수성을 적극 활용하고, 업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추석 맞아 전통시장 등 방문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추석을 맞아 지난 25일 김제의 전통시장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양 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과일을 구매하는 등 소정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양 청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사촌의 집'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장애우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양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한 만큼 지역민들과 더 많이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2016년부터 매년 설, 추석 명절에 인근 지역인 군산, 김제, 부안의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세대 3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